

순천시, 특산물 '토종 고들빼기 화장품' 출시한다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특허출원 기술 활용해 화장품 제조 항염증 효과·피부 부작용 無...“전 국민 사랑하는 화장품 만들 것”

순천시와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2년간 투자·연구를 통해 특허출원한 고들빼기 삼푸와 미스트, 팩이 출시된다.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대표 유성진)은 특허출원 기술을 이전 받아 순천시 대표 특산물인 고들빼기의 진정·항염효과를 활용한 고들 화장품이 올 4월 말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허(10-2019-0053297)는 고들빼기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가 있고 세포 독성과 피부 부작용이 없어 화장품, 약학적 및 식품 조성물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성진 대표는 “고들빼기를 추출해 만든 소재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고들 화장품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은 순천시 특산물인 고들빼기를 이용해 김치, 환, 피로, 차, 화장품 등을 가공·판매해 순천고들빼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순천시 권본가게에 200인분의 홍갓김치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3년 연속 전남 다산안전대상 수상

재난관리 모범 지자체 명성 재확인

보성군이 지난 22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제3회 다산안전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보성군은 민·관·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힘썼으며, 전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범 군민 안전 문화운동을 비롯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에서 한발 앞선 안전행정을 펼쳐온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심사는 2020년도 △재난관리 평가, △안전문화운동 평가, △재해예방사업평가 등 3개 평가의 성과·실적을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속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군민과 민간·사회단체, 유관기관 및 공무원 등 모두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난대응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산안전대상”은 전라남도가 도입한 안전 평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에 대한 애민사상을 도내 각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안전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성군은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통해 확보한 상사업비 1억 원을 지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인프라 확충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친 결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14개 평가에서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다산안전대상,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등 12억 3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고흥군, 도화 그라운드 골프장 준공식

고흥군은 최근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그라운드 골프장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도화 그라운드 골프장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3,690㎡의 인조잔디 구장과 주차장, 관리실을 갖췄으며, 지난해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3월 최종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다. 합체규 도화클럽 회장은 “그동안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어 타 구장 원정과 운동장에서 눈치를 보며 이용했는데 전용구장이 생겨서 기쁘다”고 말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건립되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고흥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업비 5억원 투입...인조잔디 구장·관리실 갖춰
송귀근 군수 “군민 여가활동·건강증진 도모 기대”

준공하였다. 이번 준공식에는 송귀근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및 군 체육회장, 그라운드 골프회원, 면 기관·사회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라운드 골프는 일반골프와 게이 트볼의 장점을 혼합한 가족형 레저스포츠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규칙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실버

송귀근 고흥군수는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으로 군민들의 여가활동이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준공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검사, 마스크착용, 명부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고흥=김택영 기자

광양시, 다문화가정·외국인 위한 ‘안전신문고 교육’ 실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위험요소 신고로 안전사고 예방

광양시는 지난 23일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을 커뮤니티센터 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고 우수사례 및 영어 신고 사이트를 홍보

하고 실천 활용을 위한 실습을 했다. 교육을 통해 광양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며, 다양한 계층의 안전신고 활성화와 안전신문고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행정에서 살피지 못한 위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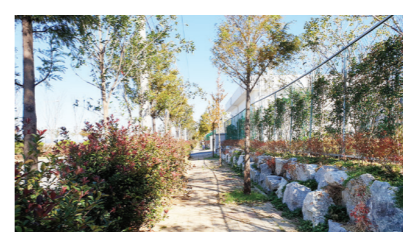
소들은 시민들께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안전 제일의 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찍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여수시,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근로자·시민 건강 지킨다”

2019년부터 3년간 국비 등 총 39억 원 투입...11km 15만2천여 그루 식재

여수시가 국가산단 여수산단로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건강한 시민 생활환경과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산단1로 및 산단4로 8.3km구간에 국·도비 20억 원 포함 총 35억 원을 투입해 먼나무 등 14종 12만6,963그루의 수목을 식재했다. 올해는 산단중앙로 2.7km구간에 국비 포함 총 4억 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흡착능력이 높은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 7종 2만4,805그루의 수목을 식재한다.

지난 15일 첫 삼을 때 올해 5월까지 다열다층 구조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미세먼지 발생원에서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에 조성하는 숲을 말한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며, 숲 내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잡아 나무 아래로 떨어뜨리는 원리다.



시 관계자는 “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